

음식료 (중립)

[식료품 출하 데이터] 2분기 그래도 Q 성장은 지속하였다

6월 식료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y-y +2.1\%$ 증가하며, 전월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과와 유제품 부문의 부진이 지속된 반면, 소주, 탄산음료, 생수, 커피음료, 소시지, 냉동식품, 레토르트 등은 출하량 증가세를 이어나가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Q의 성장을 이어나가는 품목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 위주로의 투자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6월 광공업 출하 데이터 발표. 식료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y-y +2.1\%$ 를 기록

- 5월 $y-y -1.3\%$ 감소하였던 식료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6월 $y-y +2.1\%$ 를 기록
- 2분기 식료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y-y +1.1\%$ 증가하며, 1분기의 $y-y$ 증가율 $+0.6\%$ 를 상회
- 5월 세월호 사건 이후 침체되었던 분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임
- 부문별로는 제과와 유제품의 부진, 냉동식품과 레토르트 그리고 소주와 음료부문의 성장세가 눈에 띈

부진이 지속되는 제과 부문,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y-y$ 역신장

- 빵 및 케이크, 설탕과자 그리고 건과자 및 스낵 출하량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y-y$ 역신장 기록
- 2분기 빵 및 케익, 설탕과자, 건과자 및 스낵 출하량의 $y-y$ 증가율은 각각 -9.2% , -2.8% , -4.5%
- 국내 과자의 수입 과자 대비 약해진 가격 경쟁력이 Q 성장을 정체시킨 것으로 판단됨
- 내수 위주의 사업을 하는 국내 제과업체의 2분기 Q의 성장이 정체됨을 예측할 수 있음

잉여 원유 이슈를 증명하듯, 유제품 부문 대부분 2분기 $y-y$ 역신장

- 치즈를 제외한 시유, 분유, 유산균발효유, 아이스크림류 출하량 모두 $y-y$ 역신장 기록
- 전년 대비 이른 더위와 적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2분기 아이스크림류 출하량은 $y-y -1.7\%$ 감소
- 가장 큰 폭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제품군은 분유이며, 2분기 $y-y -31.9\%$ 감소
- 전반적인 유제품류 출하량 감소로 2분기 유제품 회사의 이익모멘텀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추정됨

출하량 증가가 눈에 띄는 카테고리- 소시지, 냉동식품, 레토르트, 소주, 생수, 커피음료, 탄산음료

- 1인 가구 시대에 걸맞게 2분기 냉동식품과 레토르트식품 출하량은 각각 $y-y +5.8\%$, $+6.7\%$ 증가
-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주력 소주의 알코올 도수 하락으로 2분기 소주 출하량은 $y-y +8.3\%$ 증가
- 음료에서는 생수, 커피음료 출하량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2분기 $y-y +22.3\%$, $+16.5\%$ 증가
- 탄산음료 역시 2분기 $y-y +7.1\%$ 증가하면서, 1분기 $y-y +7.4\%$ 의 성장세를 이어나감

출하량의 성장을 이어나가는 품목에 주력하는 업체들이 투자 매력도 높음

- CJ제일제당 - 종합식품회사로서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대부분의 제품군에서 강점을 보임
- 롯데칠성 - 탄산음료를 중심으로 생수, 커피음료 Q의 성장이 지속되며, 최근에는 맥주까지 가세함
- 무학 - 저도 소주 '좋은데이'를 필두로 지속적으로 Q의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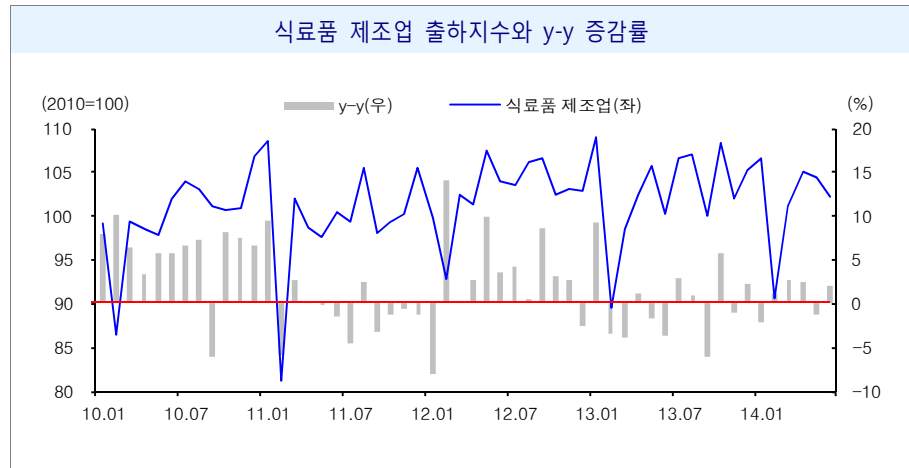
음식료 (중립) | [식료품 출하 데이터] 2분기 그래프 Q 성장은 지속하였다

품목별 광공업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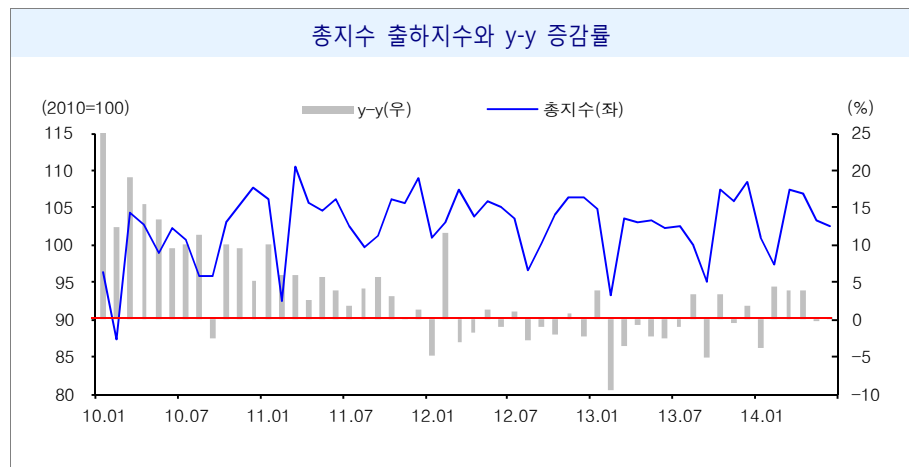
	2014.05 출하량	2014.06 출하량	2014.05 y-y	2014.06 y-y	2014.1Q y-y	2014.2Q y-y
햄(M/T)	8,655	8,346	-3.8%	-3.1%	0.6%	-0.3%
소시지(축육)(M/T)	6,755	6,800	8.9%	17.9%	12.6%	13.6%
수산물통조림(M/T)	6,472	6,798	4.5%	2.4%	-10.1%	-0.8%
농산물통조림(M/T)	1,631	1,656	9.2%	36.3%	9.0%	21.0%
참기름(kℓ)	726	858	-9.5%	54.3%	-23.7%	0.4%
대두유(식용)(kℓ)	36,300	29,817	10.8%	-10.0%	12.0%	0.3%
옥수수유(kℓ)	3,364	5,568	38.2%	129.3%	27.8%	76.5%
시유(kℓ)	150,123	148,108	-2.5%	-0.6%	-4.8%	-1.4%
분유(M/T)	1,789	2,193	-32.4%	-9.7%	9.6%	-31.9%
유산균발효유(kℓ)	46,822	43,637	-10.8%	-11.4%	-5.7%	-10.1%
치즈(kg)	4,199,608	4,022,943	2.7%	21.5%	24.1%	8.9%
아이스크림류(M/T)	42,413	51,471	-2.5%	-5.6%	2.3%	-1.7%
밀가루(M/T)	159,628	149,913	5.3%	2.5%	-1.5%	7.4%
프리믹스(M/T)	17,137	15,773	-0.3%	-4.8%	-3.3%	0.2%
전분(M/T)	36,302	37,804	5.0%	4.0%	12.4%	4.0%
물엿(M/T)	27,740	27,620	-14.8%	-9.2%	-4.7%	-12.6%
과당(M/T)	31,647	31,728	-4.9%	-6.9%	-2.2%	-3.5%
빵및케이크(M/T)	32,603	29,284	-5.4%	-7.3%	-10.7%	-9.2%
설탕과자(M/T)	9,963	7,799	-8.4%	-8.5%	-0.8%	-2.8%
건과자및스낵류(M/T)	23,263	21,193	-6.4%	-3.7%	-2.8%	-4.5%
라면류(M/T)	40,991	38,357	3.0%	-5.4%	-0.2%	1.3%
혼합조미료(M/T)	3,446	3,297	-16.3%	-16.2%	17.9%	-2.0%
마요네즈(M/T)	5,121	5,016	-9.4%	-6.7%	2.7%	-6.7%
케첩(M/T)	3,788	3,686	-15.4%	-6.5%	-1.6%	-9.4%
간장(kℓ)	15,840	16,568	-3.4%	16.6%	-6.8%	9.7%
고추장(M/T)	11,583	12,088	8.4%	8.5%	-5.2%	8.4%
커피크리머(M/T)	5,422	9,939	-31.6%	51.2%	43.1%	11.2%
커피(M/T)	1,583	1,708	-14.6%	13.9%	0.9%	6.8%
냉동조리식품(M/T)	30,712	29,536	2.4%	5.2%	9.9%	5.8%
레토르트식품(M/T)	6,719	6,533	9.2%	10.7%	-4.9%	6.7%
탁주 (kℓ)	35,746	33,093	-3.6%	-1.1%	1.2%	-0.6%
약주 (kℓ)	609	530	7.4%	20.5%	-36.2%	3.8%
복분자주 (kℓ)	301	371	-33.8%	67.9%	-6.7%	-4.6%
주정 (kℓ)	28,003	28,348	0.3%	12.7%	4.4%	7.8%
소주 (kℓ)	112,161	113,642	2.1%	12.2%	8.7%	8.3%
위스키 (kℓ)	208	304	-4.1%	-11.4%	9.4%	10.8%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kℓ)	580,008	565,479	9.5%	7.1%	9.4%	9.7%
생수 (kℓ)	235,379	233,935	24.8%	17.2%	21.1%	22.3%
탄산음료 (kℓ)	132,648	137,675	0.1%	12.8%	7.4%	7.1%
과즙음료 (kℓ)	63,409	59,266	-15.2%	-21.0%	-14.7%	-18.0%
두유 (kℓ)	24,873	13,358	18.7%	-31.6%	7.1%	0.3%
커피음료 (kℓ)	27,863	32,216	13.6%	11.4%	14.8%	16.5%
혼합음료 (kℓ)	95,836	89,029	8.8%	7.6%	6.1%	10.1%

자료: 통계청, LIG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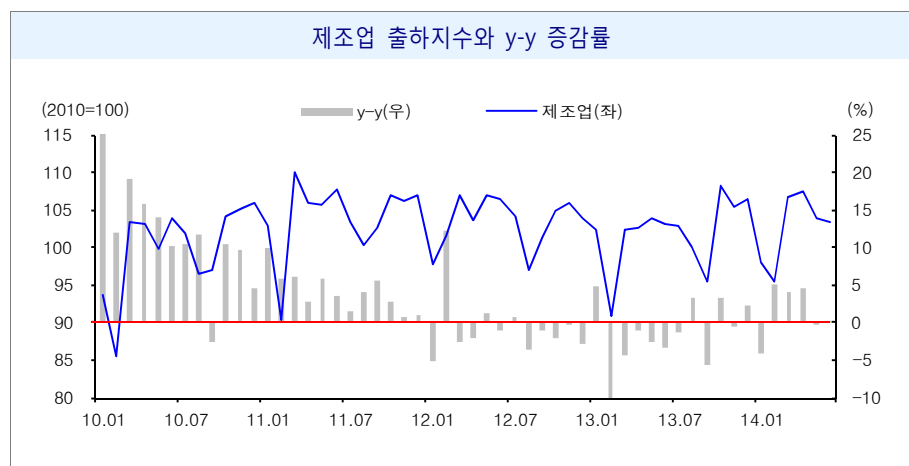
음식료 (중립) | [식료품 출하 데이터] 2분기 그래도 Q 성장은 지속하였다



자료: 통계청, LIG투자증권



자료: 통계청, LIG투자증권



자료: 통계청, LIG투자증권

음식료 (중립) | [식료품 출하 데이터] 2분기 그래도 Q 성장은 지속하였다

광공업 출하지수

	2014.05 내수출하지수	2014.06 내수출하지수	2014.05 y-y	2014.06 y-y	2014.1Q y-y	2014.2Q y-y
총지수	103.3	102.5	-0.1%	0.2%	1.4%	1.3%
제조업	103.9	103.3	-0.1%	0.3%	1.5%	1.6%
식료품 제조업	104.4	102.3	-1.3%	2.1%	0.4%	1.1%
음료 제조업	119.4	118.0	1.9%	4.1%	2.6%	4.2%
담배 제조업	99.4	114.2	-1.2%	29.9%	-10.5%	15.9%

자료: 통계청, LIG투자증권

▶ Ratings System

구분	대상기간	투자의견	비고
[기업분석]	12개월	BUY(15% 초과) • HOLD(0%~15%) • REDUCE(0% 미만)	* 단,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최종분석 이전에는 긍정, 중립, 부정으로 표시할 수 있음.
[산업분석]	12개월	Overweight • Neutral • Underweight	

▶ Complian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